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광주 북구 갑

민주통합 6명 '본선보다 뜨거운 예선'

광주 북구 갑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지역 내에서 상당한 저력이 있는 5명의 경선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져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역 강 의원에 대한 후보들이 '반(反) 강기정 연대' 전선을 형성하면서 단일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단일화'가 향후 당내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이재연 전남대 교수와 출마해 본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일대일 대결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은 일부 후보들 간 '리턴매치' 성격이 짙다. 임현모 광주 교대 총장은 지난 18대 총선 대통령 민주신당 경선에서 강 의원에게 고배를 먹었고, 김경진 변호사는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 의원과 맞붙어 석패했다.

이 때문에 이를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 강기정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3선에 도전하는 강 의원은 17대와 18대 총선에서 김상현 전 의원과 한화전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으면서 지지기반을 다져온 뒤에 탑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노인복지 등 복지 관련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층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강 의원에 대한 지역 민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층과 반대세력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각종 언론사에 여론조사에서도 강 의원의 지지율은 평균 25~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

정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이름	강기정	김경진	박규환	이관행	이형석	이재연
나이	47	45	52	50	61	55
학력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현 18대 국회의원	·전 CMB 시사토론 진행자 ·현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 광주·전남 ROTC 출우회장 ·전 민주당 17대 대통령후보 특보 2단장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전 대통령 소속지방 이양충진위원회 부교수	·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전 전남대 경제학 ·전 대통령민족신당 광주시당 공동 위원장

※ 후보는 기관마다 순

민주통합 후보 '반 강기정 연대' 변수

18대 낙방 임현모·김경진 절치부심

이형석·이채언 등도 '표밭갈이' 분주

석된다.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인 김경진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4.06%의 저조한 득표율로 강 의원에게 패했지만, 4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절치부심'하며 밀바닥 표심을 다져온 뒤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역구 내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했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과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이형석 후보도 지역 내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 광역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정치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한, 두 차례 북구청장 후보로 나선 뒤에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민주통합당 통합과정에서 '혁신과 통합' 측에서 상당한 실력(?)을 발휘한 이해찬 전 총리와의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의 친분이 두드러지는 점이 향후 당내 경선에서 '호재'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연소 교육대 총장으로 선출돼 관심을 모았던 임현모 전 광주교대 총장도 지지기반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강 의원에게 석패했던 임 후보는 그동안 '와신상답'하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교대 총장 출신 퇴임인 다른 후보들에 비해 20~30대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전 참여정부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박규환 후보는 노무현 재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과 광주 혁신과 통합 창립 준비위원회 등을 맡아 일해 온 만큼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교체'라는 가치를 내걸고 표밭을 깔고 있다.

민주당 17대 대통령 후보로 특보 2단장을 맡았던 이관행 후보도 경선에 뛰어들어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김경진·이형석·임현모·박규환 후보 등 4명은 수차례 만나 '반 강기정 연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4명이 협력 강 의원과 어떤 대결 구도를 펼쳐갈지가 광주 북구 갑 선거구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재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해 공천 경선 이후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20여 년간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해온 이 후보는 4월 혁명회, 사이버 노동대학, 6·15 통일학교 등 사회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오며 학계의 대표적 진보 교수로 알려져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무안군수 보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 시장과 강진군수, 무안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 전이 본격화됐다.

30일 현재 강진군수 예비후보로 민주통합당 강진원(52) 전 장흥부 군수, 서체원(50)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성남(56) 전 광주지방조달

청장(예비후보 등록 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무안군수 예비후보로는 민주통합당 김철주(54) 전 전남도의원, 나상우(58) 목포·무안·신안 출협조합장, 박만호(60) 전 전남도 행정지 원국장, 무소속 진상열(59) 전 무안군청 지역개발과장 등 4명이 등록

했다.

무안군수 보선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순천시장 보선에는 허정인(55) 전 전남도 정무특별보좌관, 박광호(50)

전 순천시의회 의장, 안세찬(50) 전 순천시의원, 윤병렬(50) 전 순천시의원, 이 은(59)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충원(58) 전 순천시장, 송로(49) 녹색자치포럼 공동대표, 허석(47) 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허선(59)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순천시장과 강진군수, 무안군수 보선도 총선 뜻지 않게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2년 제8기)

- 개강일자 : 2012. 3. 5.(일)
기초주간반 9:30, 기초야간반 19:00
심화주간반 9: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1. 6.(월) ~ 2012. 3. 2.(금)
- 수업기간 : 2012. 3. 5(월) ~ 2012. 6.18(일) (총 105시간)
- 수 강 력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주간반, 야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간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증 발도의 실적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09:30~12:30
- 야간반 19:00~21:50
- 수료 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2. 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 문 의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 ▶ 문 의 062) 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kwu.ac.kr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장병완, 재선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하는 생활정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가 되겠다"며 광주 남구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일부 현역 의원들 갈등에 대해 "문자마식 바꿔"는 지역발전,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며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미래 광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와 김치산업을 러스터 조성을 통한 남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박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 추진 ▲광주 하계U대회 성공 개최 ▲파산위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보편적 복지실현, 골목경제까지 침입한 재벌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등을 공약했다.

조영택 "광천동 주민중심 재개발"

조영택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30일 광주시 서구 관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천동 재개발을 주민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이날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광천동 재개발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실제 거주민들이 입주를 할수있는 임대아파트의 물량을 더 많이 늘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한 "재개발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중심의 재개발이 이뤄져야하며, 도로계획과 공원조성 등 주변 여건 개발문제는 광주시장과 담판을 지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문화계인사 잇단 지지선언

이병훈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지우 시인에 이어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인재진 총감독과 재즈가수 나윤선씨 등 문화계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 감독은 이날 '광주에 '문화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이를 잘 아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광주는 앞으로 세계인들과 함께 긴 문화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그 여행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장이 필요하고, 세계를 광주로 끌어오는 문화여행의 선장인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경환, 문화예술분야 정책간담회



최경환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30일 선거사무소에서 제1차 보육분야 정책 간담회에 이어 2차 문화예술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연예술자와 시인, 소설가, 가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공연문화예술과 전통문화예술, 미술 가꾸기, 레포츠 문화,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영재 "주민 주도 경제활성화"



민주통합당 정영재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30일 "광주 동구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동구가 가진 자원과 역사적 상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지만, 지역경제는 침체에 직면해 있고 취업률과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며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CB(Community Business)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청장 직속의 172(일처리) 센터 내 기업지원본부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CB의 발굴, 육성과 컨설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정신대 문제 관심 가져야"



장연주 통합진보당 광주 광산 예비후보는 30일 미쓰비시 근로장 신대 양금더 할머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장신대 문제는 여성 노동력 착취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근로장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민족사적 문제"라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국권 회복 차원에서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해방 67년이 되도록 이 문제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등록금인하 생색내기 안돼"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 대부분의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5%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생색내기로 인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액등록금, 질 낮은 교육수준"이라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부담률을 높이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사 업 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건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성동동 645-1번지
대 지 면적	2,411.20m ² (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민주거주, 최고고